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439-470
<https://doi.org/10.29212/mh.2026..140.4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6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원산상륙작전 연구

박희성 | 깊이같이 아카이브 대표

- 목 차
1. 머리말
 2. 청진 이후의 작전 전환과 원산 점령 명령
 3. 원산상륙작전 준비와 투입 전력
 4. 영흥만 진입과 원산항 상륙
 5. 일본군의 항복 지연과 원산 점령 완료
 6. 맺음말 : 원산상륙작전의 군사사적 의의

초 록 본 연구는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수행한 원산상륙작전을 군사작전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는 소련군의 한반도 북부 진주를 주로 해방, 점령, 미·소 관계, 북한 정권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치·외교사적 맥락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웅기·나진·청진·원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 항만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점령하였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고는 치룰니코프 보고서, 카바노프 회고록, 겔폰드의 소련 해군 전사류 서술을 중심으로 원산상륙작전의 준비, 영흥만 진입, 원산항 상륙, 일본군 항복 지연, 무장해제, 비행장 접수, 포로 처리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Japanese Monograph No. 155와 모리타 요시오의 서술을 대조하여 일본군 지휘계통의 혼선과 원산 현지에서의 무장해제 인식을 함께 검토하였다. 원산상륙작전은 청진상륙작전보다 전투 강도가 낮았다. 일본군은 상륙부대가 부두에 진입한 뒤에도 항복과 무장해제 요구에는 지연 전술로 대응하였다. 소련 해군 상륙부대는 일본군 지휘부를 압박하고, 항만·선박·시가지 주요 시설·비행장·철도 방향 이동을 차례로 통제하였다. 따라서 원산상륙작전은 일본 항복 이후에도 남아 있던 군사적 불확실성 속에서 항만을 선점하고, 항복을 강제하며, 일본군을 무장해제한 작전이었다. 전투 강도는 낮았지만, 그 핵심은 원산항·비행장·주둔군을 통제하여 전투 이후의 군사적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주제어: 원산상륙작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원산항 점령, 일본군 무장해제, 한반도 북부 진주

1. 머리말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만주와 사할린, 쿠릴열도뿐 아니라 한반도 북부의 군사적 상황도 급격하게 바꾸었다. 소련 극동군의 지상작전과 함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 항구들을 순차적으로 장악하였다. 웅기 · 나진 · 청진 · 원산으로 이어진 항만 점령작전은 일본군의 해상 철수와 항만 이용을 차단하고, 태평양함대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해상에서 뒷받침하였다.¹⁾ 미 육군 전투연구소에서 소련군 작전사를 연구한 데이비드 M. 글랜츠는 1945년 8월 소련 극동군의 작전계획을 만주를 장악하고 관동군의 상당 부분을 격멸하기 위한 전략적 이중포위 작전으로 설명하였다.²⁾ 태평양함대의 한반도 북부 항만 점령작전도 이러한 극동전역의 급속한 전개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1945년 8월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는 주로 해방, 점령, 미 · 소 관계, 북한 정권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치 · 외교사적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영어권 한국전쟁 연구를 대표하는 브루스 커밍스는 소련군의 한반도 북부 진주 과정에서 1945년 8월 21일 원산에 진입하였다고 간략히 서술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1) 박희성, 『작은 해군의 전쟁』, 보다쓰다, 2026, pp.15-21.

2) David M. Glantz, *August Storm: The Soviet 1945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Leavenworth Papers No. 7,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3, p.6.

3)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385-386.

원산항 상륙 이후 일본군 지휘부의 항복 지연, 선박 통제, 비행장 접수와 무장해제 절차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기광서는 한국 학계에서 소련군 진공의 의미가 이데올로기적 편견 속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북한의 인식을 검토하였다.⁴⁾ 이러한 연구들은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그 정치·외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소련군의 한반도 북부 진주가 실제로 어떤 군사작전과 공간 장악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특히 태평양함대가 동해안 항구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점령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소련 해군의 항만 점령작전을 개별 작전 단위로 검토하였다. 먼저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에서는 치를니코프 보고서를 중심으로 웅기·나진 상륙작전의 준비와 실행, 항만 점령 과정을 검토하고, 태평양함대의 항만 점령작전이 일본군의 퇴각과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음을 정리하였다.⁵⁾ 이어 청진상륙작전 연구에서는 청진상륙작전을 일본군의 조직적 방어를 상대로 수행된 전투상륙으로 복원하고, 정찰부대의 산발적 상륙과 일본군의 공세적 역습, 본대의 단계적 투입, 청진 점령 이후 원산 방면 후속 작전의 발판이 마련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⁶⁾ 그러나 청진 이후 태평양함대의 작전 범위가 원산까지 확대되는 과정과 원산상륙작전 자체는 아직 독립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원산상륙작전은 청진상륙작전과 같은 해안 돌파형 전투상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작전사 연구의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4) 기광서, 「8.15 해방에 있어서 소련군의 참전요인과 북한의 인식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5, 2쪽.

5) 박희성,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 『軍史』 제12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6) 박희성, 「1945년 8월 소련해군태평양함대의 청진상륙작전 연구」, 『史叢』 제118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6.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련 측 자료는 해상에서 상륙부대를 투입하여 원산항을 점령하고 일본군 주둔군과 주요 군사시설을 통제할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상륙작전으로 다루고 있다. 치를니코프가 제시한 기본 계획은 원산항 부두에 직접 상륙하여 항구와 시가지 북부를 점령하고, 제1극동전선군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실제 상륙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저항 없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일본군 지휘부는 즉각적인 무장해제를 거부하였고 항복 협상은 지연되었다. 8월 22일에는 일본군 783명이 철도 방면으로 돌파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원산 비행장과 인근 포대의 점수도 별도로 진행되었다.⁷⁾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남방해상방어구역 사령관 카바노프의 회고록에서도 원산상륙작전 당시의 군사적 긴장이 확인된다. 카바노프는 태평양함대 사령관 유마세프의 최초 명령이 해군육전대 1개 대대의 상륙을 전제로 하였지만, 원산이 일본군의 해군기지이자 연안요새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상륙부대를 증강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일본군이 청진에서 패배한 뒤 소련 해군이 약 200마일 남쪽의 원산까지 곧바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다.⁸⁾

상륙 이후에는 일본군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태에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가 조성되었다. 원산방면특별근거지대 사령관 호리 유고로(堀勇五郎) 해군소장과 요새 사령관 타도 대좌는 직속 상관의 직접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항복과 무장해제를 거부하였다.⁹⁾ 이 점에서 원산상륙작전은 청진

7)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ордена Ленина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pp.64-65, 68-70.

8) С. И. Кабанов, Поле боя—берег, Москва: Воениздат, 1977, pp.352- 353.

9) Ibid., p.354.

상륙작전과 같은 전투상륙은 아니었으나,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남아 있던 군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항만을 선점하고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추진한 작전이었다.

본고는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원산상륙작전을 군사작전사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원산항 점령은 이후 소련 해군의 북한 지역 진주와 군사적 통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본고의 목적은 원산상륙작전을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 일반이나 미·소간 한반도 분할정책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있지 않다. 본고는 그보다 원산상륙작전이 어떠한 군사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는지를 복원하고자 한다.

본고의 핵심 사료는 1947년 N. 치를니코프 대령이 보로실로프 해군아카데미 장교과정에서 작성한 주제보고서 「1945년 북한 항구에서의 태평양함대 상륙작전」(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이다. 이 자료는 작전 당시 작성된 전투일지가 아니라, 종전 후 태평양함대의 북한 항구 상륙작전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군사교육용 주제보고서이다. 따라서 원산상륙작전의 명령 시각과 병력·함정 편성, 작전계획, 상륙과 점령 경과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유용하지만, 작성 시점과 교육·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회고록과 전사료 자료와 대조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는 카바노프의 회고록 『전장-해안』(Поле боя-берег)을 활용한다. 카바노프는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남방해상방어구역 사령관으로서 원산상륙작전의 병력 증강과 지휘체계 구성에 관여하였다. 그의 회고록은 치를니코프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서술된 지휘관의 사전 판단과 원산의 해군기지·연안요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병력 증강의 배경 등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이 자료는 종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회고록이므로, 작전 당시의 판단과 후대의 기억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카바노프의 서술을 치를니코프 보고서와 다른 소련·일본 측 자료와 대조하여 활용한다.

겔폰드의 『일본과의 전쟁에서의 소련 함대』(Советский флот в войне с Японией)는 1958년에 출간된 소련 해군 전사류 문헌이다.¹⁰⁾ 이 책은 태평양함대와 적기 아무르소함대의 대일전 작전을 지상군의 작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옹기·나진·청진·원산으로 이어지는 태평양함대의 한반도 북부 항만 점령작전을 전체적인 작전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전후 소련에서 편찬된 전사류 문헌이라는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작전의 세부 경과는 치를니코프 보고서와 카바노프 회고록 등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활용한다.

이들 자료는 작성 시점과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련 측 자료라는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느 한 자료의 서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치를니코프 보고서, 카바노프 회고록, 겔폰드의 전사류 서술을 상호 대조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일본 측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

일본 측 자료로는 미군이 일본군 관계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Japanese Monograph No. 155¹¹⁾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조선종전의 기록—미·소 양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귀환』(朝鮮終戦の記録—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¹²⁾을 활용하였다. Japanese

10) Г. М. Гельфонд, *Советский флот в войне с Японией*, 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1958.

11) *Record of Operations against Soviet Russia on Northern and Western Fronts of Manchuria, and in Northern Korea (August 1945)*, Japanese Monograph No. 155, Military History Section, Headquarters, Army Forces Far East, 1954.

12)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

Monograph No. 155는 당시 원산 현지의 일본군 작전문서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일본군 지휘계통의 혼선과 무장해제 인식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활용한다. 모리타 요시오의 서술 역시 전후 일본 측에서 조선 종전과 일본인 귀환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므로 원산 상륙과 무장해제가 일본 측 기록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 방위연수소 전사실이 편찬한 『전사총서 제73권 관동군<2> 관특연·종전 시의 대소전』(『戦史叢書 第73巻 関東軍<2>関特演・終戦時の対ソ戦』)도 활용하였다. 『전사총서』는 종전기 관동군의 대소전과 한반도 북부 부대 이동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였다.¹³⁾ 또한 원산과 관련된 일본 측 원사료를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를 통해 추가로 조사·검토하였다.¹⁴⁾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청진 점령 이후 태평양함대의 작전 여건 변화와 원산 점령 명령이 내려진 배경을 살핀다. 제3장에서는 원산상륙작전에 투입된 함정과 상륙부대의 편성, 그리고 작전 준비 과정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청진항 출항에서 영흥만 진입, 원산항 상륙과 상륙부대 본대의 하선까지의 경과를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상륙 이후 일본군 지휘부의 항복 지연, 야간 대치, 원산 시가지 주요 시설 점령, 비행장 점수와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산상륙작전의 군사사적 의의를 정리한다.

店, 1964.

13)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編, 『戦史叢書 第73巻 関東軍<2>関特演・終戦時の対ソ戦』, 東京: 朝雲新聞社, 1974.

14)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JACAR), <https://www.jacar.archives.go.jp/>

2. 청진 이후의 작전 전환과 원산 점령 명령

원산상륙작전은 청진상륙작전 이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작전 활동 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이 확대는 제1극동전선군의 지상공세와 맞물려 있었다. 제1극동전선군은 악천후와 험준한 산악·삼림 지형 속에서도 야간에 국경을 넘었고, 경찰부대와 선형대대가 일본군 전초와 장애물 지대를 통과해 주력부대의 공격로를 열었다.¹⁵⁾ 1945년 8월 18일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전투활동 구역이 확대되었고, 연합군과의 새로운 분계선 설정에 따라 원산항 점령작전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작전구역 조정에 따라 원산상륙작전은 극동전역의 전반적인 작전 전개와 연결된 후속 항만 점령작전으로 추진되었다.

소련 제1극동전선군의 작전계획도 한반도 북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글랜츠는 제25군이 동녕·왕청·연길 일대를 확보한 뒤 일본군의 조선 방면 탈출로를 차단하고, 한반도 방향으로 남진하도록 계획되었다고 설명하였다.¹⁷⁾ 일본 측 『戰史叢書 第73卷』도 제34군의 임무가 청진 방면에서 진입하는 소련군에 대비하여 함흥 부근의 요역을 확보하고, 소련군의 평양·경성 방면 전진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제34군은 소련군 주력이 원산 또는 강계 방면으로 향할 경우 이를 공격해 분쇄할 계획을 세웠으나, 종전 시점까지 소련군 주력은 제34군 방면에 출현하지 않았

15) David M. Glantz, op. cit., p.109.

16) Циркулярников, op. cit., p.64.

17) David M. Glantz, op. cit., p.76.

다.¹⁸⁾ 이러한 지상작전 구상과 실제 진출 상황 속에서 원산 점령은 제1극동전선군의 지상군이 도착하기 전에 태평양함대가 해상에서 먼저 실행한 항만 선점작전이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원산항 점령을 추진한 직접적 배경은 일본군의 해상 철수 가능성이었다. 치를니코프는 정찰 자료를 근거로 일본군이 원산항을 통해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산에서 일본 본토로 향하는 대규모 선단과 개별 선박이 출항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¹⁹⁾ 겔폰드는 청진 점령으로 옹기·나진·청진이 소련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간 뒤, 38선 이북에서 일본군이 조선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항구가 어대진과 원산만 남았다고 서술하였다. 태평양함대 군사평의회는 일본군이 이 두 항구를 통해 일본 본토로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대진과 원산을 즉시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²⁰⁾ 결국 원산은 이 시점에서 일본군의 해상 철수를 차단하기 위해 선점해야 할 주요 항구였다.

원산 점령 명령 당시 소련 해군은 일본군의 실제 항복 이행 여부와 원산의 방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함대사령관의 최초 명령은 호위함·상륙함·어뢰정을 이용해 해군육전대 1개 대대를 상륙시키라는 것이었다. 카바노프는 이처럼 제한된 병력 투입이 지시된 배경을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발표와 연결하였다. 그는 일본의 항복 발표가 없었다면 함포와 항공기의 확실한 엄호 없이 해군육전대 1개 대대만을 원산으로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실제로 전투 없이 원산을 넘겨줄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당시 소련 측이 파악한 것은 원산이 동한만 남서부의 큰 연안 도시이자 항구이며, 호도와 갈마의 두 반도와 주변 도서가 바다 쪽에서 이를 둘러싸고 있다는 정도였

18)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編, op. cit., pp.447-448.

19)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4.

20) Г. М. Гельфонд, op. cit., p.106.

다. 카바노프는 원산이 일본의 해군기지라면 해상 방면에 방어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²¹⁾

원산은 한반도 동해안의 주요 항만이자 일본 해군기지가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원산에는 원산방면특별근거지대 사령관 호리유고로(堀勇五郎) 해군소장과 요새 사령관 타도 대좌가 있었으며, 요새 주둔병력은 약 5천 명으로 파악되었다. 항구 진입로에는 6개의 해안방어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산 비행장에는 약 50대의 항공기가 집결해 있었다.²²⁾

당시 일본군의 후퇴 양상도 원산 점령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치룰니코프는 어대진항 지역의 나남군집단 소속 일본군 부대들이 약한 저항을 보이며, 소규모 부대로 후퇴를 엄호한 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소련 측은 이러한 후퇴 양상과 일본의 항복 발표를 고려하여 원산항의 일본군 주둔병력보다 적은 규모의 상륙부대로도 항만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³⁾ 이러한 조건은 제한된 병력으로 원산항을 신속히 점령하는 작전 구상의 배경이 되었다.

원산항 점령 명령은 8월 20일 새벽에 하달되었다. 치룰니코프는 8월 20일 02:00시 남방해상방어구역 사령관 카바노프가 함대 군사평의회로부터 “8월 21일 09:00시까지 원산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스투데니치니코프 1급 함장이 원산 해군기지 사령관으로 지명되었고, 작전계획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²⁴⁾ 카바노프는 같은 명령을 태평양함대 사령관 유마셰프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고 있으며, 원산이 38선에 가까운 대도시였기 때문에 함대가 향후 이를 확보해 활용하려

21)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2.

22) Циркульников, op. cit., p.68.

23) Ibid., p.64.

24) Ibid., p.64.

했다고 회고하였다.²⁵⁾ 두 기록은 명령의 전달 주체를 각각 함대 군사평의회와 유마셰프 함대사령관으로 달리 서술하지만, 8월 20일 02:00시에 원산항 점령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원산항 점령 명령이 규정한 일정은 매우 촉박하였다. 명령 수령 시각은 8월 20일 02:00시였고, 원산항 점령 목표 시한은 다음 날인 8월 21일 09:00시였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31시간 안에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병력과 함정을 준비하여 청진항을 출항한 뒤 원산항을 점령해야 했다. 치를니코프는 한반도 북부 항구 상륙작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준비의 역동성’을 들었다. 전구의 작전상황이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준비 기간은 극히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원산상륙작전의 경우 실제 작전계획 수립에 주어진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였다.²⁶⁾

짧은 준비 시간에도 원산상륙작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행 상륙작전의 경험이 있었다. 치를니코프는 옹기·나진·청진항 상륙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3시간에 불과한 작전계획 수립 시간이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청진항 점령 이후에는 후속 작전을 위한 작전기지도 형성되었다. 청진항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 병력과 함정을 운용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었고, 태평양함대는 이를 작전구역 내 다른 항구에 대한 후속 작전에 활용할 수 있었다.²⁷⁾

카바노프는 일본군이 청진에서 패배하여 도시에서 축출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소련 해군이 그곳에서 약 200마일 남쪽의 원산까지 곧바로 진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²⁸⁾ 이처럼 원산상륙작전의 신속한 준비에는 선행 상륙작전에서 축적된

25)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2.

26)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p.74, 65.

27) Ibid., pp.65, 72.

28)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3.

경험과 청진항의 작전기지화가 뒷받침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산상륙작전은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8월 18일 이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전투활동 구역이 확대되면서 원산항 점령이 작전적으로 가능해졌다. 둘째, 일본군이 원산항을 통해 일본 본토로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산항 선점의 필요성이 커졌다. 셋째, 웅기·나진·청진 상륙 경험과 청진항의 전진기지화는 제한된 준비 시간 속에서도 원산상륙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산은 38선 이북 동해안에서 일본군이 병력과 장비를 해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던 주요 항구 가운데 하나였으며, 해군기지와 비행장을 갖춘 군사적 요충지였다. 원산상륙작전은 이 거점을 제1극동전선군의 지상군이 도착하기 전에 해상에서 먼저 선점하려는 작전이었다.

3. 원산상륙작전 준비와 투입 전력

원산상륙작전의 현장 지휘는 스투데니치니코프 1급 함장에게 맡겨졌다. 작전사령관은 스투데니치니코프였고, 상륙부대 지휘관은 제13해군육전여단 참모장 코즐로프 중령이었다.²⁹⁾ 카바노프는 스투데니치니코프를 작전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유를 그가 청진에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³⁰⁾ 원산은 청진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였으므로 현장 지휘관이 항만 점령과 상륙부대 운용을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29)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5.

30)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3.

원산상륙작전에 투입된 함정은 구축함 보이코프, 호위함 EK-3, AM형 소해함 제277호·제282호, A-1형 어뢰정 6척이었다.³¹⁾ 이 편성에는 상륙부대의 항해와 항만 진입을 지원할 구축함과 호위함, 항로를 확인할 소해함, 선행부대를 신속하게 투입할 어뢰정이 포함되었다. 특히 어뢰정은 상륙 제1파를 먼저 원산항으로 진입시키는 임무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함정 편성은 병력 수송뿐 아니라 원산항 접근과 부두 상륙을 함께 지원하도록 구성된 것이었다.

상륙부대는 제13해군육전여단 예하 병력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주력은 제76해군육전대대 885명과 제74해군육전대대 소속 2개 중대 347명이었다. 여기에 제168대전차소총중대 98명, 제502독립박격포대대 1개 포대 77명, 제186독립포병대대 1개 포대 13명, 제140정찰대 82명, 제125야전의무대 165명, 제74해군육전대대 소속 1개 중대와 2개 돌격조 110명, 제625독립공병중대, 상륙부대 지휘부 70명이 포함되었다. 치룰니코프는 전체 병력을 장교와 병사를 합쳐 1,847명으로 기록하였으며, 화력은 45mm 포 4문과 120mm 박격포 6문이었다.³²⁾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최초 명령은 해군육전대 1개 대대 상륙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카바노프는 원산이 일본군의 해군기지이자 연안요새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륙부대를 증강하였다. 그는 제76해군육전대대에 제74해군육전대대 소속 기관단총중대, 대전차소총중대, 45mm 포대, 120mm 박격포대, 의무중대 등을 추가하였으며, 전체 상륙부대의 규모를 약 2천 명으로 기록하였다. 어뢰정도 처음에는 4척이 배정되었으나, 청진에 도착한 레오노프의 제140정찰대가 탑승한 어뢰정 2척을 추가하여 모두 6척

31)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4.

32) Ibid., p.64.

으로 늘어났다. 카바노프는 제140정찰대에 제74해군육전대대 소속 1개 중대를 증원하고 이를 상륙 제1파로 편성하였다. 치를니코프는 세부 편성과 함께 전체 병력을 1,847명으로 제시한 반면, 카바노프는 이를 약 2천 명으로 기록하였다.³³⁾ 두 기록 모두 최초 명령의 1개 대대 수준에서 병력과 함정이 증강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작전계획은 원산항 부두에 직접 상륙하여 항만과 시가지 북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일본군이 도시를 파괴하거나 원산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전 진행 과정에서는 항구 주둔군을 무장해제하여 포로로 잡는 한편 비행장을 점령하고 나포한 선박이 항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상륙 부대는 원산항에 직접 상륙한 뒤 항구와 시가지 북부, 적천까지의 구역을 점령하고 제1극동전선군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를 사수해야 했다.³⁴⁾ 이는 해안 외곽에 교두보를 설정한 뒤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공격하는 방식과 달리, 원산항과 시가지 북부를 먼저 장악한 뒤 현지 상황에 따라 주둔군·비행장·선박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작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웅기·나진·청진상륙작전을 거치며 축적된 항만 상륙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소련 해군육전대의 전시 상륙작전 경험이라는 더 넓은 맥락과도 연결된다. 미 해병대 중령으로 미 해군전쟁대학 해군전쟁학교에서 소련 해군육전대의 상륙능력을 연구한 도널드 K. 클리프는 소련 측 자료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군이 최소 114회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61회는 24시간 이내에 준비되었다고 정리하였다.³⁵⁾ 원산상륙작전의 작전계획 수립 시간도 3시

33)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p.352-353;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4.

34)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p.64-65.

35) Donald K. Cliff, *Soviet Naval Infantry: A New Capability?*, Thesis, School of Naval Warfare, United States Naval War College, 1971, pp.11, 15.

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상륙작전을 준비했던 소련 해군의 전시 경험과 연결해 볼 수 있다.³⁶⁾ 다만 원산에서는 항만과 해군기지뿐 아니라 비행장과 일본군 주둔군까지 통제해야 했으므로, 짧은 준비 시간 속에서 여러 군사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원산상륙작전의 준비에는 뚜렷한 제약도 있었다. 원산항은 개전 초 설정된 태평양함대의 활동구역 밖에 있었고, 증원부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치를니코프는 이 때문에 원산항의 방어체제와 수비대의 수·배치, 기뢰 살포 위치에 관한 정찰정보가 없었으며, 이러한 정보 부족이 작전 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하였다.³⁷⁾ 실제 상륙부대는 원산항에 진입한 뒤에야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일본군 주둔군과 군사시설, 항내 선박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가야 했다.

출항 전 준비는 청진항에서 이루어졌다. 작전계획상 상륙부대의 출항 시각은 8월 20일 14:00시였다. 그러나 병력의 승선과 탄약·차량의 적재는 13:00시에 시작되어 15:35분에 종료되었으며, 치를니코프는 부대의 더딘 도착과 탄약·화물 적재로 인해 준비가 지연되었다고 기록하였다. 함정들은 16:40분 원산항을 향해 출발하였다.³⁸⁾ 실제 출항은 계획보다 2시간 40분 늦어졌다.

원산상륙작전의 준비와 편성은 제한된 시간과 충분하지 않은 정찰정보 속에서 이루어졌다. 투입 병력은 청진상륙작전의 본대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구축함·호위함·소해함·어뢰정과 해군 육전대·정찰대·공병·의무대·포병·박격포대가 함께 편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원산항 접근과 부두 상륙 이후 항만과 시가지 북부, 선박, 일본군 주둔군 및 주요 군사시설을 통제해야 할 상황

36) Циркульников, op. cit., p.65.

37) Ibid., p.70.

38) Ibid., p.66.

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준비와 편성 아래 상륙부대는 원산항으로 이동하였고, 작전은 8월 21일 영흥만 진입과 원산항 상륙 단계로 이어졌다.

4. 영흥만 진입과 원산항 상륙

원산상륙부대는 1945년 8월 20일 13:00시부터 15:35분까지 청진항에서 병력 승선과 탄약·차량 적재를 마쳤다. 부대의 도착과 탄약·화물 적재가 늦어지면서 준비는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계획상 출항 시각은 14:00시였다. 실제 출항은 16:40분으로 계획보다 2시간 40분 늦어졌다. 청진항을 출발한 상륙부대는 원산으로 남하하여 다음 날인 8월 21일 08:21분 영흥만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의 직접적인 저항은 없었으며, 선두의 소해함 2척이 먼저 영흥만으로 진입하였다.³⁹⁾

일본의 항복 국면에서도 원산항 접근 과정에서는 잠수함 위협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었다. 09:30분경 호위함 EK-3은 항구 입구 약 3케이블 거리에서 잠수함의 잠망경으로 판단한 물체를 발견하였다. 이에 EK-3과 구축함 보이코프는 해당 지점을 향해 24발을 사격하였고, 함정들은 잠수함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기동하였다. 기동 중 보이코프는 다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수중 목표와 교전하였다. 같은 시각 어뢰정에 탑승한 상륙 제1파가 원산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어뢰정 뒤로 다른 함정들이 뒤따랐다.⁴⁰⁾ 카바노프는 이 제1파가 레오노프의 제140정찰대에 제74해군육전대대 소

39) Ibid., p.66.

40) Ibid., p.66.

속 기관단총중대 1개 중대를 증원한 선두제대로, 어뢰정 6척에 탑승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⁴¹⁾ 그 사이 원산 비행장에서는 일본군 항공기 6대가 이륙하여 소련 해군 함정의 사각지대를 지나 멀어졌다가 다시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10:15분 제74해군육전대대 소속 1개 중대와 제140정찰대로 구성된 제1파가 원산항 부두에 상륙하였다.⁴²⁾

원산항 진입에서 중요한 변수는 기뢰였다. 상륙부대의 함정들이 항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선이 항구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였고, 호위함 EK-3은 이 가운데 범선 1척을 나포하였다. 범선에서는 일본인 2명과 한국인 1명이 연행되었다. 한국인은 원산항에 자성기뢰가 있으며 몇 척의 범선이 이미 폭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흰 깃발이 꽂힌 부이가 떠 있는 항로를 알려주었다. 이 정보는 상륙함정이 원산항으로 진입할 항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11:28분 선두 소해함은 자성기뢰 1개를 폭파시켰으며, 이후 소해망과 함정 아래에서는 추가적인 기뢰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함정들은 자성기뢰에 유의하며 좁은 항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상륙병력을 실은 함정들은 어뢰정의 도움을 받아 해안까지 접근하였다.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지만, 자성기뢰는 항만 진입 과정에서 실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³⁾

원산항 내부에는 다수의 선박이 남아 있었다. 상륙부대 함정들이 항구로 진입하면서 확인한 선박은 부두에 정박한 수송선 3척, 범선 약 60척, 정크선 약 60척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군 소형 소해함 2척은 항구에서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다시 돌아왔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 장악은 부두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 그치지

41)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3.

42)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7.

43) Ibid., p.67.

44) Ibid., p.67.

않고 항구 안에 남아 있던 다수의 선박과 그 이동을 통제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제1파 상륙 이후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일본군 주둔군 처리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11:35분 함대사령관은 상륙부대 지휘관에게 일본군 주둔부대를 무장해제하여 병영에 집결시키고 적절히 대우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무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빼앗지 말고, 장성과 장교들은 병영으로 이송한 뒤 계급에 맞게 대우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⁵⁾ 이 지시는 원산항 상륙 직후 일본군의 무기를 회수하고 병력을 병영에 집결시키는 한편, 장교단에 대해서는 기존 계급에 따른 처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무장해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12:45분부터 함정들은 부두에서 후속 병력의 하선을 시작하였고, 하선 작업은 16:00시에 종료되었다. 함정들이 항구로 접근할 당시 붉은 깃발을 든 약 5천 명의 군중이 부두 쪽으로 모여들었다. 12:55분 상륙부대 지휘관은 함대사령부에 제1파가 상륙하였고, 항구의 소해망에서 기뢰 1개가 폭발하였으며, 붉은 깃발을 든 약 5천 명의 군중이 소련군을 환영하러 나왔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⁴⁶⁾ 여기서 ‘환영’이라는 표현은 소련 측 보고에 사용된 표현이므로, 당시 군중의 의도 전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산항 상륙 현장에 대규모 군중이 집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원산항 상륙과 병력 하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항만 주변의 군사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상륙부대는 잠수함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영흥만과 원산항으로 접근하였고, 자성기뢰가 부설된 좁은 항로를 통과하여 선발부대와 제1파를 상륙시킨 뒤 후속 병력을 하선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구 안의 다수

45) Ibid., p.67.

46) Ibid., p.67.

선박도 통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지휘부와 주둔군에 대한 실제 무장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행장과 해안포대 등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도 남아 있었다. 이후 작전은 일본군 지휘부와 협상과 주둔군 무장해제, 주요 군사시설 점령 단계로 이어졌다.

5. 일본군의 항복 지연과 원산 점령 완료

상륙 직후 가장 큰 문제는 일본군 지휘부의 항복과 무장해제였다. 원산방면특별근거지대 사령관 호리 유고로 해군소장과 요새 사령관 타도 대좌는 천황의 항복 명령을 받았고 관동군의 항복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직속 상관으로부터 항복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원산 요새의 주둔병력은 약 5천 명이었으며, 포로와 지역 주민에 대한 심문에 따르면 원산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도 일본군 약 5천 명이 집결해 있었다. 항구 진입로의 연안 방어는 6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개 포대에는 280mm포, 4개 포대에는 75mm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원산 비행장에도 약 50대의 항공기가 집결해 있었으며 공격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⁴⁷⁾

카바노프는 상륙 이후 원산의 상황을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로 회고하였다. 그의 기록에서는 원산 요새 주둔군이 약 7천 명으로 나타나 치를니코프가 기록한 약 5천 명과 차이가 있다. 시내 곳곳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집단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소련 해군 상륙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일본군은 병력에

47) Ibid., p.68.

서 우세하면서도 전투를 개시하지 않았고, 동시에 항복도 거부하였다. 호리 해군소장과 타도 대좌는 직속 상관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항복을 거부하였고, 스투데니치니코프가 두 사람에게 기함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자 일본군은 항구를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코즐로프 중령은 병력을 집중하여 항구 방어를 조직하고, 항구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와 거리에 포와 기관총을 갖춘 차단진지와 박격포 소대를 배치하였다.⁴⁸⁾

겔폰드의 기록은 원산의 일본군 배치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추가하여 전한다. 원산 시내의 일본군 주둔군 약 5천 명은 나남 지역에서 패퇴하여 이동한 일본군 병력으로 보강되고 있었으며, 원산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도 별도의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위치해 있었다. 또한 원산항은 기뢰로 방어되고 있었다.⁴⁹⁾ 이 가운데 외곽 일본군의 위치는 치룰니코프가 약 32km로 기록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자료는 정확한 거리에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원산 시내의 주둔군 외에도 외곽에 상당한 일본군 병력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일본군 지휘체통의 단절과 혼선은 일본 측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Japanese Monograph No. 155는 종전 명령 이후에도 제34군이 예하 부대와의 연락과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제137사단 제375연대는 일본인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원산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원산이 이미 소련군에게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아갔다.⁵⁰⁾ 원산에 대한 소련 해군의 선점은 이처럼 일본군 후속부대의 이동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모리타 요시오의 기록은 원산 상륙과 무장해제 과정을 일본 측

48)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4.

49) Г. М. Гельфонд, op. cit., p.108.

50) Japanese Monograph No. 155, op. cit., pp.239-240.

시각에서 보완한다. 모리타는 8월 21일 소련 해군이 원산에 상륙한 뒤 타도 대좌와 원산방면특별근거지대 사령관 호리 유고로 해군소장이 소련 군함에 올라 교섭하였으며, 그날 저녁 일본군에 대한 일방적인 무장해제 명령이 내려졌다고 정리하였다.⁵¹⁾ 이는 소련 측 기록에서 나타나는 일본군 지휘부와 항복 교섭 및 무장해제 요구와 대체로 연결된다. 다만 모리타가 기록한 소련군의 상륙 규모인 약 1만 명은 치를니코프 보고서의 1,847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병력 규모의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일본군의 항복 지연이 계속되자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보다 강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8월 21일 22:43분, 스투데니치니코프는 함대 사령관으로부터 호리 해군소장과 일본군 장교단을 기함으로 데려와 주둔군에게 항복 명령을 내리게 하고, 비행장과 항공기를 즉시 인계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수송선과 범선의 출항을 금지하고, 탈출을 시도할 경우 격침할 것이며 이를 일본 측에 경고하도록 지시받았다. 긴 협상 끝에 호리 해군소장과 타도 대좌는 기함으로 나왔고 즉각 항복을 선언하였다.⁵²⁾ 이 명령은 일본군 지휘부의 항복뿐 아니라 비행장·항공기와 항내 선박의 통제를 동시에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리 해군소장과 타도 대좌가 항복을 선언한 뒤에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 요새 사령관은 휘하 장교를 통해 주둔군에게 야음을 틈타 소련군을 공격하고 소련 함정을 나포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라는 서면 명령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 시도는 소련군 통역관에게 발각되었으며, 이후 일본군 지휘부와 접촉은 소련군 장교를 거쳐 이루어졌다. 같은 날 밤 일본군 병력은 시내에 집결한 뒤 상륙부대 방어진지의 후방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상륙부대

51) 森田芳夫, op. cit., pp.166-167.

52)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9.

는 방어진지로 복귀하여 참호를 구축하고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일본군은 실제 공격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8월 22일 08:00 시까지 앞서 접근했던 지역에서 물러났다.⁵³⁾

8월 22일 날이 밝자 상륙부대는 원산 시내에 대한 점령 행동을 확대하였다. 상륙부대는 16:00시까지 경찰서, 헌병 주재소, 우체국, 전신소, 라디오방송국을 점령하고 원산시 북서쪽 외곽으로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교 1개를 파괴하고 통신도 차단하였다.⁵⁴⁾ 카바노프는 경찰서·헌병대·우체국·전신국·라디오방송국과 함께 철도역도 장악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⁵⁵⁾ 같은 날 17:00시에는 783명으로 구성된 일본군 부대가 철도 방면으로 돌파하려 하였으나 상륙부대에 포위되어 무장해제되었다. 이어 18:00시 일본군은 지휘관으로부터 항복 명령을 받았다.⁵⁶⁾ 이로써 상륙부대의 통제 범위는 항만에서 시가지의 주요 행정·통신·교통시설로 확대되었다.

비행장에 대한 통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카바노프는 레오노프의 제140정찰대가 8월 22일 16:00시까지 어뢰정으로 이동하여 원산 비행장에 진입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정찰대가 도착하기 약 한 시간 전 일본군의 최신형 쌍발 폭격기 20대가 이륙하여 포획을 피했으며, 정찰대는 비행장의 지원요원과 경비대를 포로로 잡아 무장해제하였다.⁵⁷⁾ 반면 치를니코프는 8월 23일 원산 비행장이 점령되었고, 일본군 병사와 장교 1,200명이 무장해제되어 비행장 병영에 집결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시기 원산 인근 도서 지역과 그곳에 위치한 포대의 점령도 진행되었다.⁵⁸⁾ 두 기록을 종합하면 비행장에 대한 군사적 통제는 8월 22일 정찰대의 선행 투

53) Ibid., p.69.

54) Ibid., p.69.

55)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5.

56)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70.

57)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5.

58)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70.

입에서 시작되어 다음 날 대규모 병력의 무장해제와 집결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치를니코프는 8월 26일까지 일본군 병사 5,959명과 장교 279명, 모두 6,238명이 포로로 처리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⁹⁾ 카바노프는 일본군 주둔군의 항복이 8월 22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8월 26일에야 완료되었다고 회고하였다. 항복한 일본군은 원산 비행장 인근 막사에 수용되었으며, 그곳에는 7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고 장교 250명은 별도로 수용되었다.⁶⁰⁾ 두 기록은 포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가 상륙 당일에 완료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 무렵 원산에는 소련 해군기지가 창설되었고 스투데니치니코프 1급 함장이 기지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원산 비행장의 비행대원 건물로 거처를 옮겼다. 호위함 EK-3과 구축함 보이코프는 청진으로 돌아갔으며, 어뢰정들은 원산에 남아 새로 창설된 해군기지에 편입되었다.⁶¹⁾ 이는 원산상륙작전 사령관이었던 스투데니치니코프가 점령 이후에는 원산 해군기지 사령관으로 역할을 전환한 시점이었다.

원산 점령은 8월 21일 부두 상륙에서 시작되어 22~23일 시가지 주요 시설과 비행장, 인근 도서 및 포대의 장악과 일본군 집단 무장해제로 확대되었다. 8월 26일까지 일본군의 항복과 포로 처리가 계속되고 소련 해군기지가 운용되면서 원산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사실상 완료되었다.

59) Ibid., p.70.

60)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5.

61) Ibid., p.355.

6. 맺음말 : 원산상륙작전의 군사사적 의의

본고는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원산상륙작전을 군사작전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태평양함대는 대일전 참전 이후 옹기·나진·청진을 차례로 점령하며 한반도 북부 동해안 항만에 대한 작전범위를 남쪽으로 확대하였다. 원산상륙작전은 이러한 항만 점령작전의 후속 단계였으며, 본고는 그 가운데 원산항 상륙과 점령 과정 자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태평양함대는 1945년 8월 20일 원산항 점령 명령을 받은 뒤 짧은 준비 시간을 거쳐 8월 21일 영흥만에 진입하고 원산항에 상륙하였다. 이 작전은 제1극동 전선군의 지상군이 도착하기 전에 해상에서 먼저 원산항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철수 가능성과 항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산상륙작전은 청진상륙작전과 같은 전투상륙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청진에서는 상륙부대가 일본군의 조직적 방어를 돌파하고 교두보를 유지해야 했다. 반면 원산에서는 부두 상륙 이후 일본군 지휘부를 압박하고, 무기·선박·비행장·해안포대를 접수하는 과정이 작전의 중심이 되었다. 원산상륙작전의 성격은 상륙 당일의 저항 여부뿐 아니라 이후의 점령과 무장해제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때 파악할 수 있다. 소련 해군은 해상에서 병력을 투입해 항만을 선점하고, 항복을 지연한 일본군 주둔군을 무장해제하는 한편 주요 군사시설을 통제하였다.

원산항 상륙 이후에도 일본군 지휘부 협상, 선박 출항 차단, 비행장 접수, 도서·포대 처리, 포로 집결이 이어졌다. 일본군은 천황의 항복 선언과 관동군의 항복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산 현

지 지휘부는 직속 상관의 직접 명령 부재를 이유로 즉각적인 무장 해제에 응하지 않았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상륙부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항만을 방어하고, 일본군 지휘부를 압박하며 원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차례로 접수하였다.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포로 처리는 8월 26일까지 계속되었다.

원산상륙작전의 군사사적 의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이 작전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한반도 북부 동해안 항만 점령 범위를 원산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원산 점령은 일본군의 해상 철수와 항만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항복을 지연하던 일본군 주둔군을 무장해제하였다. 셋째, 원산항과 비행장 접수, 그리고 원산 해군기지의 창설은 태평양함대가 동해안 남부로 확대된 작전범위를 유지할 새로운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비행장 접수는 이러한 원산의 군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였다. 원산은 항구와 해군기지뿐 아니라 일본 해군 항공부대가 운용된 군사 거점이었다. 치룰니코프는 원산에 약 50대의 항공기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⁶²⁾ 카바노프는 제140정찰대가 원산 비행장에 진입하기 약 한 시간 전 일본군의 최신형 쌍발 폭격기 20대가 이륙하여 포획을 피했다고 기록하였다.⁶³⁾ JACAR의 원산 해군항공대 관련 자료에서도 원산이 일본 해군 항공부대의 활동 거점이었음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원산 점령은 항만의 장악에서 비행장을 포함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로 확대되었다.

62) Цирульников, op. cit., p.68.

63) С. И. Кабанов, op. cit., p.355.

64)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元山海軍航空隊」, JACARグロッサリー; JACAR Ref. C13120002900, 「元山海軍航空隊戦時日誌 自昭和20年6月1日至昭和20年6月30日」, 『戦時日誌(九州・元山・佐伯・第2鹿屋・762海軍航空隊)昭和20年』, 防衛省防衛研究所.

원산은 단순한 접수지가 아니라 항만·해군기지·비행장·철도 연결망이 결합된 작전상 요충지였다. 레오노프의 회고록 『얼굴을 맞대고』(Лицом к лицу)도 원산에서 다수의 일본군 장교와 병사가 포로로 처리되었음을 적고 있다.⁶⁵⁾ 이 서술은 원산이 태평양함대 정찰부대 활동의 마지막 도달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완한다. 전투 강도는 낮았지만, 원산상륙작전은 정찰부대와 소형 함정을 앞세워 항만·비행장·주둔군을 신속히 장악하려 한 태평양함대식 상륙작전의 연장선에 있었다.

물론 본고는 치를니코프 보고서와 카바노프 회고록, 겔폰드의 전사류 서술 등 소련 측 자료에 크게 의존하였다. 일본 측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지만, 일본군 내부의 명령 전달과 원산 현지 지휘관의 판단을 충분히 복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치를니코프 보고서와 카바노프 회고록은 작성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병력 규모와 포로 수, 원산 현지 상황에 대한 서술은 상호 대조하여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원산상륙작전은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에도 현지에서 항복과 무장해제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여, 해상에서 병력을 투입해 원산항을 선점하고 일본군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을 통제해 작전이었다. 태평양함대는 제1극동전선군의 지상군이 도착하기 전에 항만과 항내 선박을 장악하고, 일본군 지휘부에 항복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비행장과 포대 등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의 일본군은 즉각적인 전투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항복과 무장해제를 지연하였고, 소련 해군은 항만 방어와 지휘부 압박, 시가지 주요 시설의 점령을 병행하며 원산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확

65) В. Н. Леонов, *Лицом к лицу*, Москва: Воениздат, 1957, p.163.

보하였다. 따라서 원산상륙작전의 의미는 전투 강도 자체보다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남아 있던 군사적 불확실성을 해상으로부터의 선점과 점령을 통해 통제하였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1. 사료·회고록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 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ордена Ленина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Кабанов, С. И., *Поле боя—берег*, Москва: Воениздат, 1977.

Леонов, В. Н., *Лицом к лицу*, Москва: Воениздат, 1957.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元山海軍航空隊」, JACARグロッサリー; JACAR Ref. C13120002900, 「元山海軍航空隊戦時日誌 自昭和20年6月1日至昭和20年6月30日」, 『戦時日誌(九州・元山・佐伯・第2鹿屋・762海軍航空隊)昭和20年』, 防衛省防衛研究所.

Record of Operations against Soviet Russia on Northern and Western Fronts of Manchuria, and in Northern Korea (August 1945), Japanese Monograph No. 155, Military History Section, Headquarters, Army Forces Far East, 1954.

2. 연구서

Гельфонд, Г. М., *Советский флот в войне с Японией*, Москва: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1958.

森田芳夫, 『朝晩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編, 『戦史叢書 第73巻 関東軍<2>関特演・終戦時の対ソ戦』, 東京: 朝雲新聞社, 1974.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Glantz, David M., *August Storm: The Soviet 1945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Leavenworth Papers No. 7,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3.

Cliff, Donald K., *Soviet Naval Infantry: A New Capability?*, Thesis, School of Naval Warfare, United States Naval War College, 1971.

박희성, 『작은 해군의 전쟁』, 보다쓰다, 2026.

3. 논문

기광서, 「8.15 해방에 있어서 소련군의 참전요인과 북한의 인식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5.

박희성,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 『軍史』 제12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박희성, 「1945년 8월 소련해군태평양함대의 청진상륙작전 연구」, 『史叢』 제118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6.

〈Abstract〉

A Study of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of the Soviet Pacific Fleet in August 1945

Park, Hui-seong

This study examines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conducted by the Soviet Pacific Fleet in August 1945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operational history.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iscussed the Soviet advance into northern Korea in the contexts of liberation, occupation, Soviet-American rel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By contrast, the sequence and manner in which the Soviet Pacific Fleet occupied the northern Korean east-coast ports of Unggi, Rajin, Chongjin, and Wonsan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preparation of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the fleet's entry into Yonghung Bay, the landing at Wonsan Port, the delay in Japanese surrender, the disarmament process, the seizure of the airfield, and the processing of Japanese prisoners. It draws primarily on Tsirulnikov's report, Kabanov's memoirs, and Gelfond's account of Soviet naval operations, while comparing them with Japanese Monograph No. 155 and Morita Yoshio's account.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was not a high-intensity combat landing like the Chongjin Landing Operation.

Japanese forces did not directly resist the landing at the pier, but they did not immediately comply with surrender and disarmament demands. The Soviet naval landing force pressured the Japanese command and gradually controlled the port, ships, key urban facilities, the airfield, and movement toward the railway. Therefore,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was not a simple unopposed landing or a peaceful reception of surrender. It was an operation to seize the port, enforce surrender, and disarm Japanese forces amid the military uncertainty that remained after Japan's surrender. Although its combat intensity was low, the Wonsan Landing Operation developed into a military control operation in the aftermath of Japan's surrender.

Key Words : Wonsan Landing Operation, Soviet Navy, Pacific Fleet, Occupation of Wonsan Port, Disarmament of Japanese Forces, Soviet Advance into Northern Korea

원고투고일 : 2026.07.06. 심사수정일 : 2026.08.26. 게재확정일 : 2026.09.09.